

일개 간호대학생과 졸업생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인식*

방 경 숙¹⁾ · 조 진 경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선택은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독립과 자아실현을 위한 준비의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한 사람의 경제 일꾼이자 국가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성숙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나날이 발달해가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는 전공 및 진로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해 보는 것은 진로에 대한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 교육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국내 간호계에서도 최근 전문간호사 제도의 도입,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등 간호교육과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간호대학생들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개선 전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대학생들은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성적에 맞추어 합격위주의 대학진학을 한 결과(고향자, 1992), 올바른 직업관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게 되어 자신의 직업세계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다른 전공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 취업률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어 오히려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김명아, 임지영, 김숙영, 김은정, 이종은, 고유경, 2004).

간호사와 같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직에서는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업에 대한 신념·태도·지각, 다시 말해서 전문직관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윤은자, 권영미, 안옥희, 2005). 그런데 최근 간호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직업 윤리의식 결여, 자기개발 및 창의성 결여, 확고한 직업의식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는 간호사로서의 의식과 자질이 결여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추수경, 전은미, 1998). 이러한 문제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돈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져 간호 수행능력을 저하시키고 직업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나거나 적응결여의 문제 등을 나타내어 결국 이직률을 높게 된다.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전 세계적으로 간호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다(Barron, West, & Reeves, 2007). 간호 대학생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고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취업 후에도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며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와 진학 및 취업 등에 대한 인식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 재학생과 졸업 6년 이내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의 자질에 대한 인식과 직업에 대한 평

주요어 : 간호대학생, 진로, 직업

1)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교신저자 E-mail: ksbang@ajou.ac.kr)

2)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조교

투고일: 2008년 4월 25일 심사완료일: 2008년 5월 12일 게재확정일: 2008년 5월 24일

가기준 및 전공 선택과 진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진로지도를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과 졸업생의 간호 전공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과 졸업생의 직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과 졸업생의 간호사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과 졸업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용어 정의

● 간호 전공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선택 시기와 선택 동기, 간호사의 자질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 진로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진학 및 취업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입장에서 원하는 근무분야, 기대하는 간호사 역할, 졸업 직후와 5년 후의 진로에 대한 희망, 대학원 진학여부 및 분야, 원하는 임상 근무 기간 및 장기 근무의 장애 요인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의 전공 선택 및 진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1개 대학의 간호학과 2학년, 3학년, 4학년 재학생 전수와 홈커밍 행사에 참여한 졸업생을 근접모집 단으로 하여 이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 응답에 동의하는 대상자를 임의표집 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2학년 32명, 3학년 41명, 4학년 40명의 113명 졸업생 37명 총 150명(응답률 81.1%)이었다.

연구 도구

● 직업 평가 기준

Rognstad, Aasland 및 Granum(2004)이 노르웨이 ‘직업 오리엔테이션’ 조사에서 직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도구를 간호사에게 적용한 12문항의 5점 척도에 사회적 인식과 직장분위기 및 인간관계 2개 문항을 추가하여 14문항의 5점 척도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77이었다.

● 간호사의 자질

조경자와 이현숙(2005)이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를 기초로, 문헌고찰을 토대로 하여 간호사에 필요한 자질로 연구자가 일부 수정 보완하여 구성한 10개 문항의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도구의 타당도는 차후 검증이 필요하다.

자료 수집 방법

일개 간호대학의 재학생 2, 3, 4학년과 홈커밍 행사에 참여한 졸업 후 6년 이내의 졸업생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 응답에 동의하는 경우 자가보고형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재학생 125명 중 최종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113명으로 응답률은 90.4%였으며, 졸업생은 60명 중 37명으로 61.7%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10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였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50)

Variables	Categories	n(%) or M±SD
Gender	Female	141(94.0)
	Male	9(6.0)
Grade	Sophomore	32(21.3)
	Junior	41(27.3)
	Senior	40(26.7)
	Graduate	37(24.7)
Academic performance	High	46(33.3)
	Moderate	75(54.3)
	Low	17(12.3)
Age		23.54±2.42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가 94%로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각 학년과 졸업생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자가보고에 의한 성적 분포는 중위권이 54.3%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23.54세였다 <Table 1>.

간호 전공에 대한 인식

● 간호학 입학 동기

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학 입학 동기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체적으로 ‘전문직을 원해서’가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23.3%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비율이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이 두 가지 요

인이 모두 1순위나 2순위에 해당하였다. 졸업생에서는 ‘전문직을 원해서’가 42.9%로 월등하게 높았으며, ‘직업의 안정성’은 11.4%로 나타났다. 2학년과 3학년에서는 성적에 맞추어 선택했다는 응답도 각각 15.6%, 22.0%에 달했다.

● 간호학과 선택 시기

대부분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 수능시험 이후에 전공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간호학과 선택시기 또한 수능 이후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 34.2%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에서는 수능 이후와 고등학교 3학년이 37.5%로 나타났고 3학년, 4학년, 졸업생에서는 수능 이후가 각각 58.5%, 45.0%, 58.3%로 나타났다.

<Table 2> Reasons for selecting nursing major

Categories	Sophomore (n=32)	Junior (n=41)	Senior (n=38)	Graduate (n=35)	Total (N=146)
Aptitude	3(9.4)	2(4.9)	5(13.2)	2(5.7)	12(8.2)
Wanting professional job	7(21.9)	7(17.1)	9(23.7)	15(42.9)	38(26.0)
Stability of a job	7(21.9)	10(24.4)	13(34.2)	4(11.4)	34(23.3)
Social contribution	1(3.1)	1(2.4)	0(.0)	2(5.7)	4(2.7)
Suitable for academic score	5(15.6)	9(22.0)	4(10.5)	4(11.4)	22(15.1)
Other's recommendation	5(15.6)	10(24.4)	5(13.2)	5(14.3)	25(17.1)
Mission, religion	3(9.4)	0(.0)	1(2.6)	2(5.7)	6(4.1)
Others	1(3.1)	2(4.9)	1(2.6)	1(2.9)	5(3.4)

<Table 3> Time for selecting nursing major

	Sophomore (n=32)	Junior (n=41)	Senior (n=40)	Graduate (n=36)	Total (N=149)
Middle school	0(.0)	1(2.5)	1(2.5)	1(2.8)	3(2.0)
1st grade of high school	2(6.3)	2(4.9)	1(2.5)	1(2.8)	5(3.4)
2nd grade of high school	6(18.8)	1(2.5)	7(17.5)	1(2.8)	15(10.1)
3rd grade of high school	12(37.5)	12(29.3)	13(32.5)	14(38.9)	51(34.2)
After academic ability test	12(37.5)	24(58.5)	18(45.0)	21(58.3)	75(50.3)

<Table 4> Important criteria to appraise a job

Categories	Sophomore (n=32)	Junior (n=41)	Senior (n=40)	Graduate (n=37)	Total (N=150)
Stability of a job	4.13±.75	4.24±.58	4.43±.55	4.22±.53	4.26±.61
High salary	4.22±.66	4.02±.69	4.43±.68	4.49±.50	4.29±.66
Possibility for promotion	3.94±.88	3.68±.69	4.13±.88	4.14±.67	3.97±.80
Interesting job	4.25±.72	3.93±.85	4.32±.73	4.35±.63	4.21±.75
Independent job	3.72±.77	3.37±.83	3.88±.76	4.16±.69	3.77±.81
Can help others	3.50±.72	3.41±.92	3.78±.89	3.62±.72	3.58±.83
Show one's ability, useful work	4.09±.69	3.98±.72	4.37±.63	4.22±.68	4.17±.69
Flexible working time	3.91±.89	4.07±.69	4.07±.80	4.11±.61	4.05±.75
More leisure time	4.06±.84	3.83±.77	3.98±.73	4.03±.76	3.97±.77
Has human relation	3.44±.72	3.39±.86	3.38±.74	3.22±.85	3.35±.80
Able to work as part time	3.00±.84	3.02±.79	2.58±.90	2.70±.78	2.82±.84
Creative and make new one	3.09±.82	3.10±.80	3.38±.77	3.49±.93	3.27±.84
Social reputation	4.12±.79	3.88±.75	4.10±.59	3.95±.70	4.01±.71
Atmosphere and good relation with peers	4.41±.76	4.49±.64	4.57±.64	4.38±.64	4.47±.66

직업 평가 기준

직업 평가(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직장 분위기와 인간관계가 좋은 직업(4.47±.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년에서도 직장 분위기와 인간관계가 좋은 직업이 가장 중요한 직업 평가의 기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학년별로 순위에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높은 임금, 직업의 안정성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Table 4>.

간호사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한 인식

간호사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한 응답 중에서 간호기술이 4.70±.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적 지식(4.44±.64) 협조적 관계 형성(4.40±.58), 건강한 신체(4.39±.67), 그리고 의사소통능력(4.38±.5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평균이 높은 순위로 살펴보면 2학년과 3학년은 간호기술이 가

장 높았고 4학년과 졸업생은 전문적 간호지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협조적 관계 형성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Table 5>.

진로에 대한 인식

● 임상에서 원하는 근무 분야

직업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희망하는 근무 분야도 집중적이고 전문화된 간호를 보다 필요로 하는 성인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원하고 있었으며 (38.9%),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졸업생의 경우에서도 성인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기대하는 간호사 역할

본인이 일하기를 기대하는 간호사의 역할로는 2, 3학년은

<Table 5> Disposition for nurses

Characteristics	Sophomore (n=32)	Junior (n=41)	Senior (n=40)	Graduate (n=37)	Total (N=150)
Nursing skill	4.66±.48	4.45±.64	4.45±.64	4.17±.56	4.70±.60
Professional nursing knowledge	4.41±.67	4.30±.73	4.63±.49	4.41±.64	4.44±.64
Cooperative relationship	4.34±.65	4.38±.59	4.57±.55	4.30±.52	4.40±.58
Physical health	4.31±.69	4.42±.71	4.52±.64	4.27±.60	4.39±.67
Communication skill	4.38±.55	4.40±.55	4.55±.60	4.19±.57	4.38±.59
Concern and love for patient	4.31±.64	4.22±.77	4.50±.55	4.03±.50	4.27±.64
Professional ethics	4.19±.64	3.83±.87	4.25±.63	4.08±.68	4.08±.73
Contribution for nursing	3.78±.94	3.45±.85	4.08±.73	3.84±.65	3.79±.82
Teaching and research ability	3.66±.87	3.35±.74	3.80±.69	3.76±.55	3.64±.73
Humor	3.53±.88	2.95±.75	3.60±.70	3.30±.74	3.34±.80

<Table 6> Wanting department in clinical field

Department	Sophomore (n=32)	Junior (n=41)	Senior (n=40)	Graduate (n=36)	Total (N=149)
Adult general ward	4(12.5)	1(2.4)	7(17.5)	4(11.1)	16(11.0)
Intensive care unit	9(28.1)	13(31.7)	16(40.0)	20(55.6)	58(38.9)
Operating room	5(15.6)	6(14.6)	5(12.5)	2(5.6)	18(12.1)
Emergency department	8(25.0)	6(14.6)	3(7.5)	2(5.6)	19(12.8)
Geriatric ward	0(.0)	4(9.8)	1(2.5)	1(2.8)	6(4.0)
Pediatric ward	2(6.3)	3(7.3)	3(7.5)	2(5.6)	10(6.7)
Maternity ward	2(6.3)	1(2.4)	1(2.5)	1(2.8)	5(3.4)
Psychiatric ward	0(.0)	4(9.8)	1(2.5)	1(2.8)	6(4.0)
Others	2(6.3)	3(7.3)	3(7.5)	3(8.4)	11(8.6)

<Table 7> Major hoping role as a nurse

	Sophomore (n=32)	Junior (n=41)	Senior (n=40)	Graduate (n=36)	Total (N=149)
Recovery care from disease	22(68.8)	18(43.9)	19(47.5)	8(22.2)	49(45.4)
Health promotion care	9(28.1)	16(39.0)	17(42.5)	20(55.6)	46(42.6)
Disease prevention care	1(3.1)	5(12.2)	1(2.5)	7(19.4)	9(8.3)
Rehabilitation care	0(.0)	2(4.9)	3(7.5)	1(2.8)	4(3.7)

질병회복간호가 월등히 높았으며, 4학년은 질병회복과 건강증진 간호 역할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졸업생은 건강증진 간호 역할이 55.6%로 질병회복 간호 22.2%보다 훨씬 높아 학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Table 7>.

● 졸업 직후와 졸업 5년 후 원하는 간호직 종류

간호직의 특성상 임상에서의 경험을 중요시하면서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대부분 졸업 직후 국내임상(전문)간호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으나(84.4%)<Table 8>, 임상경험을 쌓은 5년

뒤에는 국내 임상간호사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는 21.0%로 많이 감소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원하고 있었으며, 해외 취업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졸업생도 15.2%로 나타났다<Table 9>.

● 대학원 진학 여부와 진학 시기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은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였으며(65.3%), 임상에서 3년 정도 경력을 쌓은 후에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전문간호사과정에 대한 관심이

<Table 8> Hope immediately after graduation

	Sophomore (n=32)	Junior (n=41)	Senior (n=40)	Graduate (n=34)	Total (N=147)
Hospital nurse	28(87.5)	36(87.8)	35(87.5)	25(73.5)	124(84.4)
Community nurse	1(3.1)	1(2.4)	1(2.5)	2(5.9)	5(3.4)
Health teacher	0(.0)	0(.0)	0(.0)	2(5.9)	2(1.4)
Public official	1(3.1)	1(2.4)	1(2.5)	1(2.9)	4(2.7)
Instructor	0(.0)	0(.0)	0(.0)	1(2.9)	1(0.7)
Company	0(.0)	1(2.4)	1(2.5)	1(2.9)	3(2.0)
Working abroad	1(3.1)	0(.0)	1(2.5)	2(5.9)	4(2.7)
Studying abroad	1(3.1)	0(.0)	0(.0)	0(.0)	1(0.7)
Others not related to nursing	0(.0)	1(2.4)	1(2.5)	0(.0)	2(1.4)
Nothing	0(.0)	1(2.4)	0(.0)	0(.0)	1(0.7)

<Table 9> Hope at five years after graduation

	Sophomore (n=28)	Junior (n=37)	Senior (n=40)	Graduate (n=33)	Total (N=138)
Domestic hospital nurse	3(10.7)	9(24.3)	9(22.5)	8(24.2)	29(21.0)
Community nurse	1(3.6)	6(16.2)	4(10.0)	2(6.1)	13(9.4)
Industrial nurse	0(.0)	0(.0)	2(5.0)	0(.0)	2(1.4)
Health teacher	5(17.9)	2(5.4)	2(5.0)	3(9.1)	12(8.7)
Public official	1(3.6)	4(10.8)	4(10.0)	4(12.1)	13(9.4)
Instructor	7(25.0)	2(5.4)	3(7.5)	1(3.0)	13(9.4)
Working in a company	2(7.1)	0(.0)	3(7.5)	3(9.1)	8(5.8)
Working abroad	5(17.9)	6(16.2)	5(12.5)	5(15.2)	21(15.2)
Studying abroad	3(10.7)	3(8.1)	4(10.0)	1(3.0)	11(8.0)
Others related to nursing	1(3.6)	2(5.4)	1(2.5)	2(6.1)	6(4.3)
Others not related to nursing	0(.0)	2(5.4)	3(7.5)	1(3.0)	6(4.3)
Nothing	0(.0)	1(2.7)	0(.0)	3(9.1)	4(2.9)

<Table 10> Applying for the graduate school

Variables	Categories	Sophomore (n=32)	Junior (n=41)	Senior (n=40)	Graduate (n=37)	Total (N=150)
Wanting graduate school	Yes	17(53.1)	23(56.1)	30(75.0)	28(75.7)	98(65.3)
	No	3(9.4)	2(4.9)	1(2.5)	0(.0)	6(4.0)
	Don't know	12(37.5)	16(39.0)	9(22.5)	9(24.3)	46(30.7)
Appropriate time for graduate school after graduation		3.44±1.01	3.30±1.10	3.11±.72	3.50±.81	3.33±.92
		(n=28)	(n=38)	(n=40)	(n=35)	(N=141)
Wanting field for graduate school	Nursing in Korea	2(7.1)	5(13.2)	9(22.5)	14(40.0)	30(21.3)
	Specialist in Korea	12(42.9)	20(52.6)	23(57.5)	14(40.0)	69(48.9)
	Nursing in abroad	2(7.1)	8(21.1)	4(10.0)	3(8.6)	17(12.1)
	Specialist in abroad	12(42.9)	5(13.2)	4(10.0)	4(11.4)	25(17.7)

<Table 11> Preference on the nursing specialist courses

Specialist courses	Sophomore (n=20)	Junior (n=23)	Senior (n=22)	Graduate (n=14)	Total (N=79)
Critical care nursing	4(20.0)	3(13.0)	4(18.2)	5(35.7)	16(20.3)
Emergency nursing	5(25.0)	4(17.4)	3(13.6)	4(28.6)	16(20.3)
Geriatric nursing	0(.0)	2(8.7)	4(18.2)	1(7.1)	7(8.9)
Home care nursing	0(.0)	0(.0)	1(4.5)	1(7.1)	2(2.5)
Psychiatric nursing	0(.0)	1(4.3)	0(.0)	0(.0)	1(1.3)
Hospice	2(10.0)	1(4.3)	1(4.5)	0(.0)	4(5.1)
Infection control	2(10.0)	0(.0)	1(4.5)	1(7.1)	4(5.1)
Anesthesia nursing	1(5.0)	1(4.3)	3(13.6)	0(.0)	5(6.3)
Oncology nursing	1(5.0)	2(8.7)	1(4.5)	0(.0)	4(5.1)
Pediatric nursing	2(10.0)	3(13.0)	1(4.5)	1(7.1)	7(8.9)
Clinical nursing	3(15.0)	2(8.7)	2(9.1)	0(.0)	7(8.9)
Public health nursing	0(.0)	3(13.0)	1(4.5)	1(7.1)	5(6.3)
Industrial nursing	0(.0)	1(4.3)	0(.0)	0(.0)	1(1.3)

높아 대학원 과정도 국내 대학원의 간호학과 일반과정보다 국내 전문 간호사과정 및 해외 전문 간호사과정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간호사과정 중에서는 중환자 전문간호사과정(20.3%)과 응급 전문간호사과정(20.3%)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근무희망기간과 장기 근무 장애요인

임상에서의 희망 근무 연수는 평균 6.72±5.58년으로 나타나으나 4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8.03±6.80년으로 가장 높아 임상에서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근무의 장애요인으로서는 3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25.3%), 과중업무(23.3%), 결혼과 양육부담(20.5%)의 순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간호학 선택 동기, 직업에 대한 평가기준, 간호사의 자질에 대한 인식 및 전공 선택과 진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위한 교육 전략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

된 서술적 조사연구로,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며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공 선택 및 간호 전공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 수능시험 이후에 전공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간호학과 선택 시기는 수능능력시험 이후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입학 성적에 맞추어서 전공을 선택한 경우도 10-20%에 해당하였다. 이는 유아교육과 신입생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고동섭, 2001; 조경자, 이현숙, 2005)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대학과 학과 선택에 성적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앞으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설명회나 대학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를 할 때 간호학의 특성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여 대학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대상자들은 전문직을 원해서이거나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간호학과에 입학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사회구조가 변화되면서 직업의 전문화로 인하여 미래에 유망한

<Table 12> Hoping period for the clinical work and major obstacles for the longer work

Variables	Categories	Sophomore (n=32)	Junior (n=40)	Senior (n=39)	Graduate (n=35)	Total (N=146)
Hoping period for the clinical work		5.90±3.40	6.86±6.03	8.03±6.80	6.00±5.26	6.72±5.58
Major obstacles for the longer work	Low income	2(6.3)	2(5.0)	1(2.6)	0(.0)	5(3.4)
	Work overload	6(18.8)	11(27.5)	4(10.3)	13(37.1)	34(23.3)
	Limitation in full play one's ability	2(6.3)	1(2.5)	2(5.1)	3(8.6)	8(5.5)
	Conflict in interpersonal relation	3(9.4)	4(10.0)	1(2.6)	3(8.6)	11(7.5)
	Marriage and child rearing burden	8(25.0)	8(20.0)	11(28.2)	3(8.6)	30(20.5)
	Fatigue due to three shift	8(25.0)	9(22.5)	10(25.6)	10(28.6)	37(25.3)
	Lack of promotion and vision	2(6.3)	0(.0)	5(12.8)	1(2.9)	8(5.5)
	Don't fit one's aptitude	1(3.1)	4(10.0)	4(10.3)	1(2.9)	10(6.8)
Others	0(.0)	1(2.5)	1(2.6)	1(2.9)	3(2.1)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간호학과에 입학한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오덕자, 최철자, 권보은, 박연환, 2005). 오늘날의 직업은 과거와는 달리 생계수단 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아실현의 장인 동시에 그 사람의 사회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추수경, 전은미, 1998).

그런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상자들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직장 분위기와 인간관계가 좋은 직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직업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성과 흥미 및 수입이 가장 우선순위로 나타난 추수경과 전은미(1998)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지만 박재산(2006)의 연구에서 이직의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관계지향문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ron, West, 그리고 Reeves(2007)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이직여부는 감독이나 관리자의 영향이 매우 큼을 강조하면서 이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증진과 갈등 해소 등 동료들 간의 인간관계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미국 간호사를 대상으로 대단위 연구를 시행한 Brewer 등(2008)도 급여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동기화와 동료와의 갈등이 이직 여부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신규간호사의 이직 현상은 국내 병원의 큰 문제로 초기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요구되는 바, 실무 능력 향상 뿐 아니라 동료 간 친밀한 분위기 형성과 심리적 지지가 이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인자임을 나타내는 결과로 생각된다.

간호사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질에 대해서는 기본실습이나 임상실습을 새로 시작한 학년은 2학년과 3학년은 간호기술의 습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 술기에 익숙해진 상위 학년과 졸업생은 임상적 판단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간호사와의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조남옥, 2004)에서 임상간호의 전문성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지식과 기술이 간호행위에 통합되는 형태로의 '과학적 실무'라고 제시한 내용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독립적으로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4학년이나 타 직종과의 관계를 경험한 졸업생들은 협조적 관계형성을 중요한 자질의 하나로 꼽아 학년에 따라 간호사의 자질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 진로 선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직후에는 임상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야로 진출하더라도 임상에서의 경력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을 학교 교육에서도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분야는 중환자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동태적 의식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직업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추수경, 전은미,

1998), 일반 병동보다는 환자의 중증도가 더 높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보다 더 전문적인 기술습득과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연한 동경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고 일반병동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취업 후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무조건 중환자실을 선호하기 보다는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의 하나로 졸업 선배에 의한 취업 정보 전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선택한 분야에서 잘 적응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졸업 전에 인턴쉽 등을 통해 부족한 수행 능력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하겠다.

진학 및 취업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대부분의 대상자가 대학원에서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특히 전문간호사 과정으로 진학하기를 원하는 대상자가 많아 국내에서 최근에야 시작된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를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진학하기를 원하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중환자간호와 응급간호가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이 분야에서의 근무를 희망하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개설되어 있는 전문간호사 과정생의 정원은 노인전문간호가 가장 높고 다음 가정간호와 중환자간호가 비슷한 수준이므로(김미원, 2006), 전문간호사 과정을 개설할 때 학생과 간호사의 수요를 파악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졸업 후 5년의 희망에서는 해외 취업을 원하는 경우도 전체 대상자의 15.2%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그 비율도 더 높았는데, 이는 2000년대 들어와 미국 간호사 부족 현상에 따라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2004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연수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 하에 실제로 해외취업 간호사가 증가한 것과(송지호, 2006) 더불어 국제화 시대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최근 연구(조희, 이규영, 2006)에서도 19.5%의 대상자가 향후 외국간호사로 활동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혀 유사한 결과를 보인 바 있다.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2학년이나 3학년이 질병회복을 위한 간호에 관심이 많은 반면 4학년과 졸업생은 그에 못지않게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경우는 간호사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어 병원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전체의 41%에 달한다는(송지호, 2006) 사실을 볼 때 앞으로 국내

의 간호도 질병회복 뿐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한 1차 건강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는 평균 6년 이상 임상에서 근무할 계획이라고 답해 짧지는 않은 기간 동안 임상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 근무의 장애요인, 즉 이직의 요인으로 예측되는 변수는 3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 업무과중, 결혼과 육아를 위해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과다업무가 직무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선행연구결과(이상미, 1995)나 Kovner 등(2007)의 미국 연구에서 신규간호사의 51%가 자의적 연장근무, 13%는 강제적 연장근무를 하며 37%가 직업을 바꿀 준비가 되어있다고 답한 것, 그리고 가정생활과의 균형 유지가 이직을 결심하는 중요 요인이라는 이명선 등(2006)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로, 적절한 인력배치를 위한 간호계의 노력이나 육아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앞으로 더 요구된다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등학생들이 간호를 안정적인 전문직으로 인식하여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겠으나 전공 선택에 대한 충분한 의사결정의 시간이 부족하고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홍보를 통해 간호학의 장점과 적성을 고려하여 간호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학년이 높아질수록 협조적 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직장분위기와 인간관계를 중요한 직업 선택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어, 교육과정에서도 의사소통기술이나 대인관계 형성 능력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간호사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많은 대상자들이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도 높으므로 이와 관련한 충분한 진학 및 취업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와 3교대 근무에 대한 부담감은 장기간의 임상 근무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학생들에게도 간호전문직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직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한 편으로는 임상 뿐 아니라 건강증진 간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일차 건강간호 등 다양한 간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간호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학교의 간호대학생 및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변화하는 세대의 성향이나 간호계를 비롯한 사회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이 간호에 대한 전문직관을 갖고 취업 후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

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리라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간호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1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 3학년, 4학년 재학생 113명과 졸업생 37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7년 10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였고 자료수집 방법은 간호사의 자질과 관련된 10개 문항의 설문지와 Rognstad, Aasland 및 Granum (2004)의 직업 평가 기준을 토대로 구성된 14개 문항의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 대상자들의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전문직을 원하기 때문이 가장 많았으며 직업의 안정성, 다른 사람의 권유, 성격에 맞추어 등의 순이었다. 간호학과 선택 시기는 수능능력시험 이후에 선택하는 대상자가 반 수 정도로 나타났다.
- 직업에 대한 평가기준으로는 직장 분위기와 인간관계가 좋은 직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높은 임금, 직업의 안정성의 순이었다.
- 간호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2학년과 3학년은 간호기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4학년과 졸업생에서는 전문적 간호지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협조적 관계 형성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 진로에 대한 인식은 첫째, 임상에서 원하는 근무분야는 성인 중환자실이 가장 높았고 둘째, 일하기를 원하는 간호사의 역할은 2학년과 3학년은 질병회복간호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나 4학년과 졸업생은 건강증진 간호 역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증가해가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졸업 직후에는 대부분 국내 임상(전문)간호사로 일하기를 희망하였고, 5년 후에는 외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도 다음으로 높았다. 넷째, 많은 대상자들이 대학원으로 진학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일반대학원보다는 전문간호과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고, 진학의 적절한 시기는 평균 임상 경력 3년 후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문 간호사 과정에 대한 과정별 선호도는 중환자와 응급 전문 간호사 과정이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임상 근무 희망기간은 평균 6년 정도이었으며 장기 근무 장애 요인으로는 3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 과중한 업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교육과정에서도 의사소통기술이나 대인관계 형성 능력에 대한 내용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간호사와 해외 취업에 대한 충분한 진학

및 취업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와 3교대 근무에 대한 부담감은 장기간의 임상 근무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학생들에게도 전문직관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임상 뿐 아니라 일차 건강간호 등 다양한 간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간호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시대에 간호대학생과 졸업생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의 진학 및 취업 지도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상자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고동섭 (2001).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김명아, 임지영, 김숙영, 김은정, 이종은, 고유경 (2004).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영향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3(4), 383-391.
- 김미원 (2006). 전문간호사제도 현황 및 발전 과제. *간호학탐구*, 15(2), 35-67.
- 박재산 (2006). 국립병원 간호조직문화 유형과 직무만족, 이직의사간의 인과관계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19, 97-118.
- 송지호 (2006). 세계화와 간호사의 해외 취업. *간호학탐구*, 15(2), 18-34.
- 오덕자, 최철자, 권보은, 박연환 (2005). 간호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가 전문직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1), 64-72.
-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 (2005).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5(6), 1091-1100.
- 이명선, 김원옥, 김덕희, 고문희, 이경숙, 김중임 (2002). 병원 간호사들의 이직 결정과정: 자아-직장-가정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서. *대한질적연구간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5-52.
- 이상미 (1995). 간호사의 직무 특성과 개인의 성격이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25(4), 790-806.
- 조경자, 이현숙 (2005).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와 유아교사직에 대한 인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1), 289-312.
- 조남옥 (2004). 임상간호사의 전문성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0(1), 125-138.
- 조희, 이규영 (2006). 간호대학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2), 163-173.
- 추수경, 전은미 (1998). 간호학사 특별과정생의 직업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5(2), 250-266.
- Barron, D., West, E., Reeves, R. (2007).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 Health Serv Res Policy*, 12, Suppl 1, 46-51.
- Brewer, C. S., Kovner, C. T., Greene, W., & Cheng, Y. (2008). Predictors of RNs' intent to work and work decisions 1 year later in a U.S. national sample. *International J Nurs Studies*, Article in press, available online at www.sciencedirect.com.
- Kovner, C. T., Brewer, C. S., Fairchild, S., Poornima, S., Kim, H., & Djukic, M. (2007). Newly licensed RNs' characteristics, work attitudes, and intentions to work. *Am J Nurs*, 107(9), 58-70.
- Rognstad, M. K., Aasland, O., & Granum, V. (2004). How do nursing students regard their future career? Career preferences in the post-modern society. *Nurse Educ Today*, 24, 493-500.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on Nursing and Future Career

Bang, Kyung Sook¹⁾ · Cho, Jin Kyong¹⁾

1)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strategies for better education and career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by investigating the recognition and intentions of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on the nursing and a future career. **Method:** Data was collected from a survey conducted between the 1st of October and 5th of December, 2007. Participants were 113 students and 37 graduates of one nursing college. **Result:**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thought that atmosphere and relationships were important criteria to choose a job. Most of them selected nursing major not because their aptitude but because of its professionalism and job stability. Most wanted to go to graduate school and were interested in a nurse specialist program, especially for critical and emergency care. The preferred nursing role changed from recovery care to health promotion as they advanced in their studies. They thought work overload and fatigue from three shift as barriers for a longer stay as a clinical nurse.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 way that it suggests some strategies for promo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daptation to working field. In order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replicate studies need to be conducted with nation-wide samples.

Key words : Nursing student, Job applica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Bang, Kyung-Sook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San 5, Woncheon-dong, Youngtong-gu, Suwon 443-721, Korea
Tel: 82-31-219-7016 Fax: 82-31-219-7020 E-mail: ksbang@ajou.ac.kr